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궁금하고 또 어떨 때는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십일조인가 또 십일조라는 헌금은 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안 드려도 괜찮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나 교회 매주 못 가요. 십일조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십일조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죠. 이런 거 보면 또 십일조는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십일조가 율법이기에 때문에 폐했다, 신약에서는 십일조가 없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폐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역시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나면 만약에 율법이 아직도 살아 있다면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의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파기 된 거다. 율법이 폐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율법에 제사법의 율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폐해졌단 말은 제사법적인 율법은 다 폐해졌다는 것 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 받기 위해서는 양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양을 잡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해졌어요. 율법은 폐해졌는데 율법은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부터 완성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시대 때 죄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양을 잡아 갔는데 이제는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양 가져갈 필요 없고 한 번 예수를 구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영원히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법의 모든 율법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생활법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생활법을 어떻게 지켰냐 하면 내가 이웃이나 형제를 너무너무 미워하면서도 내가 칼이나 총이나 흉기를 가지고 안 찔러 죽이면 나는 살인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웃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몸으로 안 했으니까 나는 간음 안 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웃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이렇

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나 하면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법의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숭배 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살인하지 않죠.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온전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일조라는 게 율법에 속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일조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와요. 근데 모세 이전에 십일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볼까요? 이게 이제 십일조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뭐예요? 아브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아브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십분의 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십일조의 시초입니다. 십일조는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안 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십일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첫째, 무슨 신앙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돌이 여호와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십일조를 니가 드려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거 아니예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형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받고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도망을 가는데 내가 거리를 재보니깐 한 2천 km쯤 되더라고요. 서울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돼요. 그럼 2천 km는 상당히 먼 거리죠. 비행기도 없어 자동차도 없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말을 타고 낙타를 탔는지 모르지만 혈혈단신으로 그 길을 갑니다. 아주 사나운 짐승도 많고 강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는데 두렵고 불안하겠죠, 두렵고 불안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올라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라고 야곱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이 주의 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나의 소득 중에서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아브람에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믿어 순종하고 믿음의 표로서 십분의 일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십일조 드려라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십일조 드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은 율법에 있어서 폐해졌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십일조는 이제 폐해졌다. 라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아브람이 바친 건 율법 이전

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아브람이 의롭게 된 건 모세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브람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먼저 왔어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믿음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니고 아브람이 의롭게 된 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이렇게 십일조를 드리는 게 먼저 왔어요. 십일조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십일조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의하고 이러면서 나는 십일조를 드려 나는 거룩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아니지요. 너 진정한 십일조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십일조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 헌금 드리는 유익이 뭐겠느냐 신약 성경에 헌금 드리는 게 많이 나오죠. 첫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내 보물 여기서 보물은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네 물질입니다. 물질은 돈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라고 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여기 보물은 헌금이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있게 만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연보가 헌금이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교회 헌금을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헌금을 할 때 제가 광고하고 다음에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9장에는 너희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심음으로 많이 거두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믿을 만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는데 헌금을 받고 바울이 너희가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풍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주의 교회와 전도자를

위한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도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일조라고 말하면 대부분 말라기의 말씀을 대부분 대표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열두지파 중에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열한 지파가 농사해서 십일조를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들이 먹고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내다보니깐 아까워서 십일조를 하지 않게 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십일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살 수 없게 되자. 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준 십일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신앙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 믿는 사람한테 막 십일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요즘도 끊임없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성경의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그리스도 일을 대신 주님 올 때까지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십일조를 통해서 교회가 보수되고 교역자들이 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십일조라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공의롭게 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면서 십분의 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 십일조가 됨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은 안 하셔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서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